

유신잔재 ‘새마을장학금’ 결국 폐지

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 41년전 1978년부터 지급... 폐지는 전국 최초

‘유신잔재’와 ‘특혜’ 논란을 빚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폐지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이다. 새마을장학금은 수년전부터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새마을장학금특혜폐지시민회의는 “태생부터 관제 동원조직이었던 새마을회는 해마다 막대한 사업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원받고, 자녀들한테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며 “40년 묵은 유신잔재, 새마을장학금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삭감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다. 장학금 지급 대

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원이다.

반면 새마을회 회원들은 ‘적폐’와 ‘관변단체’로 매도 되는데 역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새마을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새마을운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새마을운동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더 이상 새마을운동에 대해

편협하거나 왜곡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일방적인 말만 듣고 아무런 대안 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혜 논란 해소가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5151khj@srb.co.kr



새마을장학금 폐지 찬반 시위 19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이에 반대하는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손팸말을 들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도, 28일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내년 예산 확보 등 공동 대처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는 28일 전남도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4시 도청 서재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정협의회는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예산 및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애초 전남도와 전남도당은 지난해 예산 국회를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회의가 무산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전남도와 당정협의회를 갖는 만큼 지역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전남도의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눈에 띄네’

도립국악단 개정안 등 의미있는 조례안 붐몰 전남도의원들이 의미 있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입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대수(더불어민주당·장흥2) 의원은 전남도립국악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의원이 발의한 ‘전남도립국악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국악단 부감독, 부수석의 임무를 명시하고 단원 모집에서 자격을 대통령령 이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등 전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단원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와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을 실시하며 매년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명수(더불어민주당·나주2) 의원은 ‘전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치원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원아 모집과 선발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장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보라미(정의당·영암2) 의원은 ‘전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동부권 통합청사 ‘한전공대 방식’ 선정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의뢰 기본계획 수립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6월께 결정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남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한전공대 선정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광주전남연구원 의뢰해 별도의 동부권 통합청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입지선정 및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전공대 선정 방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우선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문가 위원단 200명을 자체 구성토록 한 뒤 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12명씩을 선발해 기준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위원회는 평가기준 마련을, 평가위원회는 실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올 하반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오는 순천과 여수, 광양 등 동부권 3개시

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심사해 오는 6월께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대지 3만3천57㎡, 건물 9천917㎡ 규모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비를 뺀 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25억 등 3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동부권 통합청사 준공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부지역본부 외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부,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추가로 도청의 1~2개 국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제2 행정부지사 직제가 신설될 경우 2부지사를 통합청사에 배치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순천시는 신대지구, 광양시는 광양읍 도청마을 인근이 각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수시의 후보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윤승환기자 shyoon@srb.co.kr

광주시, 추경 조기 편성 4월 임시회 제출

좋은 일자리 창출·생활SOC 등 집중 투자

광주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해 4월 임시회에 제출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으로 조기 추경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분 및 전년도 정산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 등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생활SOC 기반확충,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 분야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 22일 창립 본격 활동

광주 군공항이전 추진을 위한 시민협의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에는 채일병·양진석 대표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의회의장, 시민 등 1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개요 및 추진상황 보고, 창립선언문 발표,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된다. 추진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방

부의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조속한 선정과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이전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지난 11일 직능단체·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자문위원회 및 기획운영위원회, 사무처 등 8개 분과와 사무처로 구성됐다. 개별단체(350개), 시민사회연합단체(208개), 광주시라벌시민운동본부(116개), 시민 등 약 3만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www.seoyeong.ac.kr

“광주형 일자리,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Dept. of Automotive Engineering



2018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경진대회 EV 부문 대상 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2017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V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의 튜닝특성화대학 MOU체결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경진대회 전기자동차(EV) 부문 대상 수상(2018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바하(Baja) 부문 2회 종합우수 수상(2013년, 2016년)



서영대학교 자동차과

“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대표전화 : (062)520-5114